

전남도, 여자 스쿼시·남자 우수팀 창단



16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전남도청 여자 스쿼시·남자 우수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식에서 김명원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 박철수 전남도체육회 상임부회장, 종목단체 임원들이 선수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양연수 등 국가대표 포진...전남 스포츠 재도약 '선봉' 올해 제100회 전국체전 한자릿수 재진입 본격 담금질

전남도가 국가대표를 보유한 여자 스쿼시 직장운동경기부와 지난해 전국체전 금메달리스트가 포함된 남자 우수 실업팀을 창단해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한 자릿수 순위 재진입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2008년 여수 전국체전에서 개최지역 이점을 살려 3위에 오른 이후 줄곧 중·하위권에 머무르다 지난해 3단계나 뛰어오른 종합 10위를 기록했다. 올해 한자릿수 진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남도는 우수선수를 선발해 여자 스쿼시팀과 남자 우수팀을

구성, 16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공식 창단식을 가졌다. 이로써 전남도는 기존 펜싱(여자 에베·사브르), 정구(여), 근대5종(남·여), 카누(남·여) 팀까지 총 6개 팀 47명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육성하게 됐다. 창단식은 김명원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과 박철수 전남도체육회 상임부회장, 종목단체 임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수 임용장 수여, 선수대표 선서, 6개 팀 주장들의 2019년 필승 다짐 순으로 진행됐다. 새로 창단된 여자 스쿼시팀은 김영재(41) 코치를 필두로 양연수(21)

7), 박은옥(41), 이영옥(29), 박상은(21)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양연수는 지난 11일 국가대표에 발탁된 국내 최고의 선수다. 전남 대표로 활약한 지난해 99회 전국체전에서 개인전 금메달,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하며 전남 스쿼시가 종합 4위(921점)를 달성하는데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했다. 여자 스쿼시팀은 모든 선수들의 기량 향상으로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단체전과 개인전 우승을 자신하고 있다. 남자 우수팀은 장보근(33) 코치를 선봉으로 산타 종목의 윤용진(28), 강영식(30), 유영록(32), 고은철(27), 투로 종목의 장민규(24), 김영준(23) 등 총 7명으로 꾸려졌다.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윤용진은 금

메달을, 강영식은 은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나머지 선수들도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해 전남 선수단의 종합 10위(544점) 달성을 견인했다. 올해 전국체전에서도 금메달 2개 이상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명원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최근 체육계에서 불거진(성)폭행 등의 사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로, 지도자와 선수들의 적극적인 화합과 소통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때"라며 "새로 창단된 스쿼시와 우수팀에 출중한 기량을 갖춘 우수 선수들이 대거 포진한 데다 기존 팀도 전력이 많이 보강된 만큼, 선수단의 땀방자에 행정력을 총동원해 올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광주장애인생활체육회 기해년 신년하례식

오승현 광주시부교육감 등 4기 신입 집행부 24명 임명장 수여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4일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2019년도 신년하례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 광주시장애인체육회장은 "지난해 광주장애인체육회는 전국체전 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7위, 시도 생활체육지원사업 평가 1위 목표 달성을 다짐하면서 부회장 4명, 이사 19명 등 새 집행부 임원진을 새로 임명했다. 부회장은 오승현(광주시교육청 부교감), 백석(백서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오금택(남도TV 대표), 정병문·서

용규(전 광주장애인총연합회장) 등 5명 선임됐다. 이사는 신대현(광주장애인역도연맹회장) 등 19명이 선임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애인체육회장은 "지난해 광주장애인체육회는 전국체전 10위, 시도 생활체육사업 평가 3위 등 많은 성과를 이뤘다"며 "올해 새로 선임된 제4기 집행부와 함께 자치구 체육회 창립, 장애인 전용체육관 건립, 생활체육 참여율 증가 등 장애인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헌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광주FC, 베테랑 GK 이진형 영입

2017 인천 잔류 주역... "광주서 또 한번 기적 만들어 낼 것"

프로축구 광주FC가 골키퍼 이진형(30·사진)을 영입하며 최후방 골문 단속에 나섰다. 광주는 지난 시즌 인천서 활약한 골키퍼 이진형을 자유계약으로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2011년 제주에서 데뷔한 이진형은 안양, 안산 경찰청(현 안산 무궁화) 등에서 주전 자리를 꿰차며 통산 144경기를 출장한 프로 9년차 베테랑이다. 이진형은 공중볼 캐칭과 뛰어난 반사신경, 1대1 방어가 장점으로 꼽힌다. 또 정확한 킥으로 공격 전개 시 빌드업과 역습 상황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17년 소속팀인 인천을 K리그 1 잔류로 이끌며 그 능력을 입증했다. 당시 리그 최하위였던 인천은 이진형의 후반기 14경기 연속출장과 함께 8경기 무실점을 기록했고, 10위로 극적인 잔류 신화를 이뤄냈다. 안정적인 경기운영과 놀라운 선방 쇼로 팀을 이끈 이진형에게 팬들은 '갓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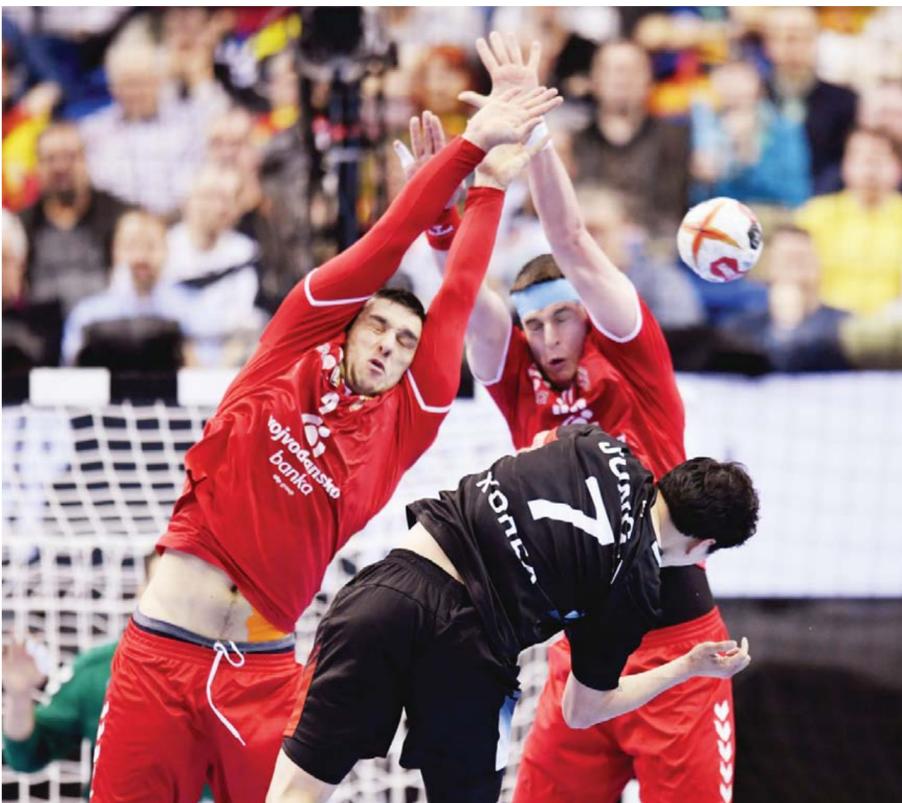
형'이라는 별칭을 붙이기도 했다. 새로운 도전을 맞은 이진형은 "항상 광주를 상대할 때마다 강한 팀이라고 느꼈다. 이 팀의 소속원으로서 큰 만족을 느낀다"며 "베테랑으로서 경기장 안팎에서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고 싶다. 그리고 다같이 승격이라는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희중기자

정현 "4강 재현" 가자

오늘 에르베르 상대 32강 도전

생애 처음으로 세트스코어 0-2로 뒤지다가 3-2 대역전승을 거둔 정현(25위)이 17일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6천250만 호주달러·약 503억원) 2회전을 치른다. 지난 15일 열린 1회전에서 브래들리 클란(78위·미국)을 상대로 3시간37분 접전 끝에 3-2 승리를 따낸 정현은 17일에는 피에르위그 에르베르(55위·프랑스)와 2회전에서 맞붙는다. 경기는 호주오픈 메인 코트 가운데 하나인 멜버른 아레나에서 열리며 17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시작하는 세 번째 경기로 예정됐다. 오전 9시부터 여자단식 두 경기가 끝나면 정현과 에르베르의 경기가 시작하는데 여자단식이 대개 1시간30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오후 1시 안팎에 경기가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일단 정현으로서는 비교적 해볼 만한 상대와 2회전을 치르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에르베르는 1991년생으로 정현보다 5살이 많고 키는 188cm로 똑같다. 정현과 같은 오른손잡이로 단식 개인 최고 랭킹은 지난해 50위다. 정현은 1회전 경기를 마친 뒤 인터뷰에서 "(에르베르는)예전에 경기해 봤기 때문에 잘 아는 상대"라며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남북단일팀, 세르비아에게도 막혔다



1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26회 세계남자핸드볼선수권대회 조별리그 A조 4차전에서 세르비아 선수들(빨간색 유니폼)이 남북단일팀 정수영(검은색 유니폼 7번)의 샷을 막고 있다. 남북단일팀은 이날 세계랭킹 6위의 강호 세르비아를 상대로 잘 싸웠으나 29대31로 아쉬운 2골 차 패배를 당했다. 세계랭킹 1위이자 개최국 독일, 세계랭킹 4위부터 6위까지인 러시아, 프랑스, 세르비아와 같은 조에 편성되는 불운을 겪은 단일팀은 17일 오후 11시 브라질(27위)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첫 승점에 도전한다. /로이타·연합뉴스

아시안컵 16강전부터 연장전·승부차기 적용

승부차기는 'ABAB 방식'...8강전부터는 비디오 판독도 시작

'90분 이내에 승부를 보자!'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에서 필리핀(1-0승)과 카르기스스탄(1-0승)을 잇달아 꺾고 중국과 최종전 결과에 상관없이 최소 2위를 확보하며 16강에 진출했다. AFC는 올해 대회부터 출전국을 기

존 16개국에서 24개국으로 늘리면서 역대 대회 처음으로 16강전이 도입됐다. 16강전부터는 한번 지면 탈락이다. 이 때문에 매 경기 사활을 걸어야 한다. 90분 이내에 승부가 결정이 나지 않으면 전·후반 각 15분씩 연장전을 펼친다. 그래도 승부를 내지 못하면 승부차기에 나선다. 승부차기 방식은 두 팀이 순서대로

변갈아 차는 'ABAB'방식이다. 한국은 아시안컵에서 승부차기를 자주 경험했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승부차기를 펼친 것은 2007년 대회다. 한국은 8강전에서 이란과 120분 연장 혈투 끝에 승부를 내지 못하고 승부차기에서 4-2로 승리한 뒤 4강에 올랐다. 태극전사들은 이라크와 4강전에서도 연장전 혈투를 펼쳤고, 결국 승부차기에서 3-4로 패해 3-4위전으로 밀렸다.

일본과 벌인 3-4위 전에도 120분 연장 혈투 속에 0-0으로 승부를 내지 못한 한국은 승부차기에서 6-5로 이겨 3위로 대회를 마쳤다. 2007년 대회 때 한국은 단판 승부에서 무려 3경기 연속 120분 연장 혈투를 치르느라 진이 빠졌다. 한국은 2011년 대회에서도 준결승에서 일본과 만나 연장전 끝에 2-2로 승부를 내지 못해 승부차기에 나섰고, 3명의 키커가 모두 실축하는 통에 0-3으로 패해 우승 도전에 실패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대회는 8강전부터는 비디오 판독(VAR)도 도입돼 한층 더 정교한 판정이 기대된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경보팬 경기취소

KBO, 관중 안전 고려...폭염·황사·강풍 경보때도 적용

선수 경조휴가 5일 신설 KBO 사무국이 올해 프로야구 정규리그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강화한다. KBO와 프로 10개 구단 단장들은 지난 15일 실행위원회에서 올해 KBO리그 규정에 미세먼지 특보 수치를 명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미세먼지 경보(PM2.5 초미세먼지) 150㎍/㎥ 또는 PM10(미세먼지) 300㎍/㎥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시 해당 구장의 KBO 경기운영위원회 지역 기상대에 확인 후 구단 경기 관리인과 협의로 경기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선수단과 관중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경보 외에도 강풍, 폭염, 황사 경보 발령 시에도 경기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기상악화에 따른 경기 진행 여부는 경기 시작 시간 1시간 전에 결정된다. 올해 정규리그 경기 시작 시간은 평일 오후 6시30분, 토요일 오후 5시, 일요일·공휴일 오후 2시로 지난해와 같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의 토·일요일·공휴일 경기 시작 시간은 오후 5시로, 혹서기인 7·8월엔 오후 6시로 각각 고정된다. /연합뉴스

다만 3월23일 정규리그 개막전 경기 개시 시간은 오후 2시이며 추석 연휴 첫날인 9월12일 경기는 오후 5시에 열린다. 비디오 판독도 약간 달라진다. 구단 신청 횟수와 별도로 경기당 1차례에 한해 심판의 재량으로 비디오 판독을 할 수 있다. 각 구단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정규이닝(9이닝)에 2회, 연장전 1회 등 최대 한 경기에 3번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선수 부상 방지를 위해 '별상 시도시 슬라이딩 규정'도 비디오 판독 대상에 추가됐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처럼 선수 경조사 제도도 신설된다. 자녀 출산, 직계 가족의 사망 등 경조사를 맞은 선수는 5일의 경조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경조휴가를 가는 선수는 엔트리에서 탈락되지만, 이 선수의 1군 등록 일수는 인정받는다. 더불어 경조 휴가가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지나지 않아도 현역 선수로 등록될 수 있다. 현행 1차 연고 지명과 전면 드래프트로 참여하게 될 상황에서 KBO와 각 구단은 다각적인 검토와 조사를 통해 신인 지명 제도 개선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